

람들에게 위대했던 사람들과 같이 호흡을 할 수 있게 해줌으로 많은 용기를 불러일으켜 주는 책이며 그가 이 책의 내용을 이처럼 분류한 것은 그 자신이 목회자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모두 144페이지이며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의 머리말이 있고 원문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참조를 달아두었다.

聖書의 實存的 理解

R.Bultmann. *Neues Testament und Mythologie*

(유 동식 역, 대한기독교서회, 1969.)

최 갑 종

(제 2 훈련소 군목 대위)

볼트만(R. Bultmann 1884-1975)은 바르트(K. Barth), 브루너(E. Brunner) 톨리히(P. Tillich) 등과 함께 금세기가 낳은 가장 이름있는 신학자 중의 한 사람으로 불리워진다. 특히 신약학 분야에서 그의 명성은 '볼트만을 통과하지 않고는 신약학을 할 수 없다'는 말이 있을 만큼 타의 추종을 불허하였다. 무엇이 볼트만으로 하여금 이와같이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하였는가?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지금 소개하고자 하는 바 소위 신학계에 '비신화화 논쟁'을 불러일으킨 그의 논문 「성서의 실존론적 이해」(1941년 처음 발표될 때의 제목은 〈Offenbarung und Heilsgeschehen〉이었으나 1948년 *Kerygma und Mythos*에는 〈Neues Testament und Mythologie〉로 개제되었다. 이를 1969년 유 동식 교수가 번역, 상기 제목으로 기독교서회에 의해 출

판되었다)이다. 필자는 먼저 이 논문에 대한 간략한 내용 소개를 하고 이어 여기에 대한 개혁 신학 입장에서의 비평을 가하려고 한다.

이 논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앞 부분에서는 '신약 성서의 선언을 비신화화하는 과제'라는 제목 하에 성경을 비신화화 하지 않을 수 없는 저자 나름대로의 당위성을 밝히고, 뒷 부분에서는 '비신화화 개요'라는 제목하에 신약 성경을 비신화화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을 말한다.

I. 왜 신약성서는 비신화화되어야만 하는가?

볼트만은 신약 성서의 세계상을 위시한 전 내용 그 자체가 모두 신화이며, 그 기원은 당시의 유대 묵시 문학의 신화론과 영지주의(Gnosticism)의 구원 신화라고 전제한다. "...신약 성서는 그 선교의 주제인 구원의 사건을 제시할 때 이러한 신화적 세계상을 전제한다. 각 주제의 기원은 당시 유대적 묵시 문학의 신화론과 영지주의 구원 신화 안에서 쉽사리 찾아볼 수 있다."(p.10)

이러한 한 신약의 케리그마는 인과 관계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참된 성서의 케리그마를 현대인들에게 이해할 수 있게끔 전달하기 위해서는 케리그마를 그 신화적 일개로부터 벗겨내는 즉 '비신화화'(Entmythologisierung)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만일 이 작업을 하지 않고 신약 성서를 그대로 믿도록 강요하면 성서의 세계관과 상치되는 과학적 세계관과 자율적 인간관을 갖고 있는 현대인들은 정신의 자기 분열과 지성의 희생(sacrificium intellectus)을 동반해야 한다는 것이다(pp.12ff). 계속해서 볼트만은 "...그러므로 만약 신약 성서 케리그마의 진리가 보존되려면 이것을 비신화화하는 길

밖에 없다" (p.19)고 하면서 신화와 신약 성서 그 자체가 이 비신화화를 요청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신화는 그 자체가 본래 인간이 스스로 자기 존재의 주인이 아니라는 세계에 있어서의 인간의 자기 이해(seinsverständnis)의 표현으로서 저 세상을 이 세상적인 것으로, 신을 인간적인 것으로 대상화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학적으로, 보다 나은 말로 실존론적으로 해석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ref. 볼트만, 「예수 그리스도와 신화론」, 유 동식 역, 신앙사, 1959, pp.16-22). 뿐만 아니라 신약 성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일종의 신기한 모순(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떤 때는 희생으로, 어떤 때는 우주적 사건으로 제시되고, 그리스도의 선재성과 동정녀 탄생의 불일치 등)이 이런 비신화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pp.20 ff; ref. 「예수 그리스도와 신화론」, p.42f). 볼트만은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신약 성서를 윤리적인 기준으로 비신화화함으로써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종말론적 케리그마)까지 제거해 버렸다고 공박하면서 신약 성서를 비신화화하되 케리그마의 진리를 상실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신약 성서를 실존론적으로 해석하는 길밖에 없다고 단정한다.(p.26)

그럼 신화론으로 표현된 성서를 신화론적 용어로 사고하지 않는 현대인들을 위해 케리그마의 진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소위 실존론적 해석이란 어떤 것인가? 이 문제를 볼트만은 그의 논문 뒷부분인 비신화화의 개요에서 밝히고 있다.

II. 어떻게 신약 성서를 비신화화할 수 있는가? (그 내용과 방법)

볼트만은 신약 성서의 중심 메시지는 근본적으로 인간에게 진실한 실존적 결단을 요청하는 인간의 자기 이해라 하면서 성서를 실존론적

으로 다음과같이 재해석한다.

① 신앙을 떠난 인간 실존: 이것은 신약 성서가 육을 따르는 생활, 죄의 생활 자연인의 생활이라고 규정하는 것으로 곧 인간이 가시적인 것이나 감각적인 것에 몰두하여 자기 안전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인간은 사실상 안정된 존재가 아닌데 안전성을 추구하면 실로 이것이 인간의 본래적인 참 삶을 잃는 길이며 그가 극복하기를 원했고 또한 그에게 안정을 주기를 희망했던 바로 그 영역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인간이 자기 안전성을 추구하는 그것이 곧 죄이다.

② 신앙의 생활: 인간의 진정한 생활은 보이지 아니하고 촉감할 수 없는 실재 위에 기초한 생활이다. 이러한 생활이란 자기 스스로 만들어 낸 모든 안전성의 포기(즉 미객관화, 탈세계화)이며 이것이 바로 신약 성서가 말하는 '영을 따르는 생활', 또는 '신앙의 생활'이다. 우리가 이 객관화할 수 있는 모든 세상의 안전성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철저히 자기를 위임하여 자기를 미래를 향하여 개방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며 바로 그렇게 할 때, 그의 죄가 용서되며 과거로부터 해방되며 하나님을 통해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된다. 이것이 곧 종말론적 실존이며 성서가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pp.28-34). 바로 여기서 볼트만은 신앙에 있어서 모든 객관적 요소 소위 그가 말하는 안전성을 철저히 거부하고 요한 복음과 바울 서신에 나타난 신앙의 현재적 성격을 그의 종말론적 실존으로 귀착시킨다.

그럼 신약 성서가 말하는 이와 같은 신앙의 생활, 곧 종말론적 실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리스도 없이도 이 종말론적 실존은 가능한가?

볼트만은 신약 성서에 있어서 신앙이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라고 하면서 이 종말론적 신앙(새로운 자기 이해)은 역사의 한 결정적 사건인 그리스도 사건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p.35,36). 그는 하이데거를 위시한 세속적인 실존 철학자들의 존재의 존재론적 구조에 대한 실존론적 분석은 신약 성서의 인간관의 세속적, 철학적 서술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인간은 본래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아래 있는 존재이므로 인간의 존재 분석에 있어서는 철학자들과 신약 성서가 서로 일치한다고 본다. 즉 현대 철학은 루터와 키에르케고르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 성서의 도움 없이도 인간의 자기 분석은 가능하다는 것이다(ref. 「예수 그리스도와 신화론」 pp.7ff). 양자의 차이점은 인간의 존재 분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해결책에 있다. 철학자들은 인간 스스로 자기의 본래적 모습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신약 성서는 철두철미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볼트만은 철학자들의 자율 그것이 곧 안전성의 추구요, 진정한 자기 위임의 생활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본다. (pp.44ff)

그렇다고 할 때 여기서 다시 인간의 자기 이해, 종말론적 실존, 참된 신앙의 생활(볼트만에게 있어서 이들은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을 가능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 근본적으로 신화적이나 아니냐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것마저도 비신화화되어야만 하는가?

볼트만은 신약 성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신화적인 말로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한다(p.51). 그렇다고 해서 볼트만이 예수의 역사적 실재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역사의 실제 인물인 나사렛 예수에 대한 신약 성서의 모든 설명 그 자체가 모두 신화적이므로 이른바 신약 성서의 케리그마적 그리스도 예수와 역사적 예수 사이에는 아무런 연속성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ref. R.Bultmann, *Jesus and the Word*, 영역 Charles Scribner's Sons, 1934, p.9). 뿐만 아니라 볼트만에게 있어서 역사적 예수에 대한 지식은 하등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역사

적 예수의 독특한 신분이나 사역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그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행위 곧 종말론적 구원의 사건이다.

볼트만은 예수 안에서 일어난 이 하나님의 행위는 눈으로 볼 수 있거나 객관적 과학 증명이 전혀 불가능하며 오직 그것의 선포를 통해서만 지금 여기 개개인의 실존 안에서 일어나는 지속적인 사건이라고 본다. 이러한 논지는 그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재해석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rcf. 「예수 그리스도와 신화론」, p.88-89)

볼트만은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음으로써 하나님은 이 세상의 힘에 지배당하는 타락한 우리 자신을 위해 한 종말론적 심판 행위를 수행하셨다고 본다. 즉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십자가를 세우셨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볼트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와 우리의 세계 밖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신화적 과정, 또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객관적 사건을 관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는 것이며,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원의 사건으로서의 십자가는 한 신화적 인격 위에 일어난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우주적 중요성을 지닌 사건이다'(p.54)라고 하였다. 여기서 이 구원의 사건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개인의 실존 안에서 재현된다는 점에서) 신화적 사건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과거의 역사적 사건 속에 기원하고 있는 영구한 역사적 사건이 된다. (p.54)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것인가? 볼트만은 부활은 순전히 신화적 사건으로서 자명한 의미를 가진 과거 역사의 사건은 아니라고 단정한다(p.57). 그는 신약 성서 안에 있는 부활의 이야기와 부활에 관한 모든 기사는 단적으로 십자가의 의미를 표현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와 부활은 다같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가져오는 것과 인간에게 진정한 생활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종말론적인 우주적 사건으로서 인식 아닌 신앙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활은 십자가의 구원의 효능을 입증하기 위하여 내세운 신화론적 사건이 아니라, 십자가가 그 자체의 의미와 마찬가지로 신앙의 대상이다. 실로 부활에 대한 신앙은 십자가의 구원의 효능에 대한 신앙과 똑같은 것이다. ...그리스도를 신앙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의 십자가를 신앙하는 것이다. 십자가의 구원의 효능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구원의 효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p.60). 바로 이점에서 볼트만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의 유일성과 객관성을 모두 파괴시켜 버리고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한 개인의 실존적 경험으로 환원시켜 버린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그리고 탁월한 종말론적 사건으로서 믿게 되었으며, 어떻게 십자가의 구원의 효능을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유일한 해답으로서 볼트만은 십자가가 언제나 부활과 더불어 선포되는 방법에 있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자로 설교되는 선교의 말 속에서만 우리와 만난다고 주장한다(p.61). 바로 이 선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임에 있어서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해명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수락하느냐 또는 거절하느냐 하는 결단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선교의 말씀을 통해 인간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시 부활한 자로 이해하기를 원하느냐 원치 않느냐 하는 결단에 놓이게 되고 여기에 대한 응답이 바로 부활절 신앙이라는 것이다. 이 응답을 통해 비로소 십자가와 부활은 종말론적 현재의 사실로 등장한다.

이렇게하여 볼트만은 자기의 비신화화야말로 신앙 자체를 인간이 만들어낸 과학적 세계관과 객관화된 지식 위에 세워진 모든 안전성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며, 이것은 바로 바울이나 루터가 율법의 행위 없이 신앙만으로 의롭다 함을 입는 교리를 지식과 사상의 범위에다 철저히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거듭거듭 강조한다.(ref. 「예수 그리스도와 진화론」, p.

(비 평)

볼트만의 논문에 대한 세부적인 비평에 앞서 그의 신학 방법론을 중심한 몇 가지 신학적 전제(안경)들을 살펴보는 것이 유익하리라 생각한다. 이 전제들에 대한 고찰은 그가 신약 성경에 대한 비신화화를 제창하지 않을 수 없었던 논리적 귀결 과정을 설명해 줄 것이다.

① 그는 성경 접근에 있어서 철두철미 양식 비평을 고수한다. 이 양식 비평에 근거하여 그는 신약 성경은 초대 교회의 신앙적, 신학적 산물이므로 역사적 신빙성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의 언행과 교훈들은 실제적인 것이 아니고 초대 교회의 필요(자기 이해로 만들어낸 독창적 창작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볼트만 「공관 복음 전승사」(허 혁 옮김, 대한기독교서회, 1971), p.461: 「신약성서 신화」(허 혁 옮김, 한국성서연구소, 1976), p.1) 그가 역사적 예수와 케리그마의 그리스도 사이의 불연속성을 그토록 강조한 것도(Bultmann, *Jesus and the Word*, 1934, p.9: “최초의 교회의 ‘케리그마’와 역사적 예수” 「현대 역사적 예수 논구」, 전 경연 편집, 1976, p.35) 이 방법의 결론에 근거해서이다.

② 종교 사학 방법을 채택하여 신약 성서의 신앙의 표현들, 예를 들면 그리스도의 선재성, 하나님의 아들, 부활, 재림 등은 당시의 유대 묵시론과 영지주의와 동양의 신비 종교 등의 영향 아래 형성되었다고 주장한다.(ref. 「성서의 실존론적 이해」, p.10,11)

③ 현대의 과학적 세계관을 성경 이해의 기준으로 삼아 인과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성경의 모든 초자연적 요소와 역사 내의 신의 개입을 부정한다.(Ibid., p.12,13)

④ 실존주의 철학, 특히 딜타이(W.Dilthey), 크로체(B.Croce), 콜링우드(Collingwood)의 역사관과 키에르케고르(Kierkegaard)의 역설 이념과 하이데거(Heidegger)의 인간 존재 분석을 성경 이해의 가장 적절한 전이해(前理解, Vorverständnis)로 받아들인다. (ref. 「성서의 실존론적 이해」, p.38; 「예수 그리스도와 신화론」, pp.78ff; Bultmann, *Existence and Faith*, ed. and tr.S.Ogden, N.Y., 1961, p.288; *Faith and Understanding*, ed. R.Funk & tr.L.P.Smith, N.Y., 1969, p.31; 「역사와 종말론」, 서 남동 역, 대한기독교서회, 1977, pp.148ff)

이제 우리가 볼트만에게 묻고 싶은 것은 이상의 전제들이, 그러한 신학 방법론이 참으로 타당하느냐 하는 점이다. 그는 그 자신의 전제들에 대해 너무 무비판적이 아닌가?

만일 우리가 푸른 안경을 쓰고 사물을 보면 모두 푸르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정작 사물이 푸르게 보이는 원인은 사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푸른 안경에 있지 않는가?

볼트만은 자신의 안경에 대한 자체 비판 여지가 전혀 없는 것처럼 거기에 절대적 신뢰를 두는데 그것이 정당한가? 하지만 소위 양식 비평도 독일의 계몽주의와 이성주의에서 받아들인 성경의 파괴적 비평의 유산이 아니며, 종교사학 방법도 모든 종교를 단순히 인간 정신 문화의 산물로 보는 진화론 개념에 입각해 있지 않은가? 그는 한 세대 전의 부우셀(Bousset), 라이젠스타인(Reitzenstein) 등이 내세운 가설들을 근거로 하여 신약 성경이 유대 묵시 문화와 동양의 신비 종교와 헬라의 영지주의의 영향으로 형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오늘날 신약 시대사에 정통한 학자들 대다수가 전 시대 종교사학과 가설들에 대해

대단히 회의적이지 않은가? (ref. R.M.Wilson, *The Gnostic Problem*, London, 1958, pp.67,71)

또 그는 실존주의에 입각한 과학적 세계관 아래 성경의 초자연적 요소를 부인하고 있지만 현금의 과학 철학자들은 오히려 과학 자체가 상대적인 것이며, 사물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가설이요 모델이기 때문에 성경의 초자연적 요소를 심판할 자격을 갖지 못한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지 않으며, 달타이, 크로체, 콜링우드의 실존주의적 역사관과 하이데거의 철학 사용에 대해서는 바르트, 티리케(H.Thielicke)를 위시하여 그의 제자들까지 비판을 가하고 있지 않은가? (ref. 「현대신학의 동향」, 윌리엄호턴 저, 김 성환 역, 대한기독교서회, 1971, pp.47-60)

이제 좀더 직접적인 문제에 들어가 보자.

리더보스(H.Ridderbos)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이 논문에 대한 볼트만의 근본적인 동기는 신앙을 과학적 세계관으로부터, 케리그마를 역사로부터 구하려는 목회적인 열심에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Ridderbos, *Bultmann, Modern Thinkers Series*, 1960, pp.27f). 다시 말해서 이 논문을 포함한 그의 모든 신학적 노력은 현대의 과학적 세계관과 강한 역사적 비평을 통하여 신약 성서를 한갓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고대 문서로 전락시키려 하거나, 파괴시키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세계관과 역사적 비평으로부터 현대인들에게 필요하고 그들이 수납할 수 있는 신약 성서의 중심 메시지를 살리고, 보존하기 위하여 주관과 객관, 사건과 의미(역사와 역사성)의 일치를 강조하는 실존주의 사상으로 신약 성서 전체를 재해석하려는 웅대한 선교사적 목적에 있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 (ref. Robert C.Roberts, *Rudolf Bultmann Theology: a critical interpretation*, W.B.Eerdmans, 1976, pp.323f)

그런데 참으로 그가 이 일에 성공을 거두었는가? 오히려 그는 신약 성서를 비신화화시킴으로써 복음 그 자체를 훼손시켜 버리지 않았는가? 바르트가 하나님의 계시를 역사 비평에서 구제하기 위해 *Geschichte*의 영역으로 피난시킨 것처럼 그는 신앙의 자리를 현대 세계관과 과학으로부터 확보하기 위해 케리그마를 일반 역사로부터 분리하여 개체의 역사성 속에 있는 실존적 의미의 영역으로 끌어들이지만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성경적 복음의 내용인 역사 내에서의 하나님의 모든 위대한 행위를 거부해 버리고 말지 않았는가? 그는 '영원한 것은 고통을 받을 수 없다'는 헬라 철학의 결론과 '영원한 진리는 상대의 세계에 들어 올 수 없다'(ref. G.E.Lessing, *Theological writings*, London, 1956, pp.51-56; Hermann Diem, *Dogmatics*, p.9)는 레싱(G.E.Lessing)의 구호에 발맞춰 하나님을 모든 보편 역사에 개입할 수 없는 전적 타자로 몰아부쳤는데 이것은 완전히 이신론(Deism)적 신관이 아닌가?

그가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의 유일성과 초자연적인 면을 모두 신화에 귀결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도 결국 하나님은 결코 역사에 개입하거나 행위할 수 없다는 그의 잘못된 신관 때문이 아닌가?

이 모든 것은 성경 자체의 자기 주장과 얼마나 상반된 것인가? 볼트만은 성경 자체의 자기 주장에 대해서는 조금도 경청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는 자기의 전체에 따라서 모든 것을 도매금으로 처리해 버린다. 그러나 성경은 볼트만의 주장과는 달리 하나님은 참으로 세계의 창조주요 역사의 주관자로서 역사를 친히 움직이시고 간섭하실 뿐 아니라 역사를 통해 말씀하시고, 역사 안에 친히 찾아오셨다고 가르친다. 물론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행위가 신인동형론(anthropo morphism)적으로 제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예를 들면 하나님의

눈, 손 등) 부분적으로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의 세계관을 허용하고 있다(비교 빌 2:10). 성경이 오늘날의 과학적 세계관이나 용어로 표현되어 있지 않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 점에서 성경은 확실히 해석을 요청하고 있다(Ridderbos, *Bultmann*, p.29). 그러나 이러한 성경의 양상과 볼트만이 말한 신화 개념과는 전적으로 다르다. 볼트만은 성경에 나타난 모든 역사 내의 하나님의 행위를 신화로 귀착시켜 버린다. 그는 하나님의 행위의 장소는 오직 인간 실존의 영역에 한정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위를 객관적 보편적 사건으로 표현하는 그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ref. 「예수 그리스도와 신화론」, p.100)

반면에 성경은 하나님의 행동사라 할 수 있을 만큼 역사 내의 하나님의 행동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특히 구약에 있어서). 성경은 이 행동이 우리의 시공간 안에서 일어난 객관적 사건임을 밝히는 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예 : 출애굽 사건에 대한 구약의 증거).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은 역사의 주(主)로서 역사에 친히 개입하시며 역사 안에서 역사를 통하여 그의 행위를 이끌어 가심을 강조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역사에 찾아오신 하나님 자신이며 예수 그리스도 사건은 역사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행위의 절정이며 목표이다. 우리는 일반 세속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이루어진 구속사를 서로 구분할 수는 있지만 서로 분리할 수 없다. 전자는 후자를 위해 봉사하고 후자는 전자 안에서 전자를 통하여 일어나 전자를 이끌어 간다. 하나님은 이 양자의 지배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양자의 중심이다. (ref. Schilder, *Heidelbergsche Catechismus*, 1939, vol.I, p.178; S.G.Greidanus, *Sola Scriptura*, 1970, pp.122f)

이처럼 그리스도를 중심한 구속사는 우리의 시공간 안에서, 혈과 육을 가진 우리의 타락한 세계를 통하여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객관적 관찰과 서술이 가능한 것이다. 볼트만은 서구 문화의 세속화

과정에서 기독교 신앙이 하나님 개념이 확보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칸트(I.Kant)가 과학과 종교의 영역을 서로 분리하여 과학은 객관적인 인식의 세계(현상 세계)에 종교는 윤리적 세계(물 자체)에 한정시킨 것처럼 기독교 신앙의 자리를 객관적 인식의 세계로부터 해방시켜 비인식의 세계인 실존의 영역에 두는 데 있다고 보고 비신화화 운동 즉 반객관화, 비역사화 작업을 시도하였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그는 헤어날 수 없는 이원론과 주관주의에 빠지지 않았는가? 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 평범한 유대인으로 보고 그 예수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고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종말론적이고 우주적 차원의 구원 행위가 그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바로 그 점에 있다. '이것은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신앙의 눈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결단의 대상이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vere Deus, vere Homo)의 유일한 인격을 근본적으로 부정해 버리지만 성경은 오히려 이러한 그의 인격 때문에 그를 통한 하나님의 종말론적이고 우주적인 구원의 행위가 가능했고 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된다고 증거하고 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 이시며 참 인간이 아니시라면 그는 우리의 구원자도 될 수 없고 그를 통한 하나님의 유일회적인 구원 행위가 종말적이고(현재적) 우주적(보편적) 차원을 갖지도 못했을 것이다.

우리는 확실히 구속사와 세속사를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역사적 예수와 그리스도를 서로 분리할 수 없다고 본다. 하나님은 구속사를 일반 역사 안에서 일반 역사를 통하여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유일한 인격을 가지신 역사적 예수 그를 통하여 그의 종말론적인 구원 사건을 수행하셨다. 그러므로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시간과 장소에서 일어난 유일회적인 객관적 사건임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과 내용이 된다(ref. 고전 15:2-4; 14-16).

신약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역사 안에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며(고전 15:3,4),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복음이요 신앙의 대상(ref. 고전 15:1-4; 갈 1:6-12)임을 거듭거듭 밝히고 있다. 바로 이 초역사적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사도적 설교(케리그마)의 중심 주제였던 것이다.(행 2:22-36; 3:12-26 참조)

볼트만은 그의 논문에서 신앙의 근거로서 모든 역사적 사건을 부인하고 그 의미만을 붙잡고, 그 의미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지만(ref. 「성서의 실존론적 이해」, pp.52,54,60) 우리는 구원의 사건(대상)과 그것을 믿는 우리 신앙을 구별해야 한다. 역사적인 그리스도 사건(유일회적인) 없이는 우리의 신앙도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신앙이기 때문이다. 거듭 말했지만 신앙의 의미는 바로 역사적 사건에서 발생한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고전 15:14)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유일회적인 사건과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신자를 연합시킴으로 그리스도 사역의 유익이 신자에게 미치는 실존적인 면과는 엄격히 서로 구분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과거에 죽은 사건이 아니라 신자들의 매일매일의 체험 속에서 계속적으로 살아 있는 종말론적이고 우주적 사건임을 믿는다. 그러나 신자들의 체험 안에서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리스도 자신의 유일회적인 역사적 죽음 및 부활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ref. R.B.Gaffin, *Redemption and Resurrection*, pp.23-74)

볼트만은 성경을 실존론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성경에 나타난 복음의 한 면(실존적인 면)만을 너무 극대화시켜 그것을 통해 성경의 다

른 모든 부분까지 해석하려 하는 월권을 범한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 부분에 걸쳐 복음의 양면성을 말하고 있다. 예를 들면 볼트만은 그의 논문에서 부활을 취급하면서 로마서 6:1 이하와 고후 5:17, 6:2 등을 근거로 삼아 마치 사도 바울이 구원의 현재적인 면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지만(pp.59ff) 사도 바울은 성경의 다른 여러 곳에서(롬 5:9; 13:11; 딤후 4:18 등) 구원의 미래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볼트만은 사도 요한이 그의 복음서와 서신에서 영생의 현재적인 면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지만(ref. Bultmann, 「예수 그리스도와 신화론」, 유 동식 역, pp.116ff; 이 책에서 그는 수평적 차원의 역사적 종말을 완전히 거부해 버린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영생의 현재적인 면 못지 않게 미래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다(요 4:14; 6:27; 12:25, ref. Ladd, *A Theology of N.T.*, 1974, pp.256ff). 그가 성경의 이 모든 미래적인 면을 간과하는 것은 보편사적이고 수평적인 역사의 종말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오직 개인의 실존의 경험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직적인 실존적 종말만을 인정하기 때문이 아닌가? 또 볼트만은 그의 논문 〈존재의 기독교적 해석〉 부분에서 (pp.28ff) 실존주의 철학의 인간 존재 분석과 신약 성경의 신앙론과 근본적으로 일치한다고 하면서 모든 신학과 기독교론을 인간학의 범주의 귀착시켜 버린다.(ref. Bultmann, 「신약 성서 신학」, pp.328ff)

물론 우리는 칼빈이 말한 대로(J. Calvin, 기강 1권 1:1)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 실존에 대한 지식과의 상호 연관성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성경의 전 강조점은 하나님의 빛에서 보는 인간이지, 인간의 빛에서 보는 하나님이 아니다. 성경은 단순히 인간 이해의 지식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객관적 구속사에 초점을 맞춘다. 볼트만은 이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에 대한 신앙, 그가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새 창조에 이끄는 전 우주에 대한 이 하나님의 행위하심을 위한 방을 주지 않는다. 그는 인간 실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의 만남이라는 구호 아래 하나님의 초월성과 주권성을 인간 실존 안에 한정시켜 버린다. 그리하여 볼트만은 하나님을 위한 인간이 아니라(man as sub specie Dei) 인간을 위한 하나님이 되게 한다(God sub specie hominis).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의 본래의 이해를 되찾기 위한 보조자에 불과하다. (ref. Ridderbos, *op.cit.*, p.42)

요약한다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magnalia Dei)라 부를 수 있는 모든 것은 볼트만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의 새로운 자기 이해의 어떤 이치적 표현(신화론적)이 아니라 오히려 이 새로운 자기 이해가 하나님의 이 위대한 역사적 실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적 죽음과 부활에 그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다. 볼트만은 구원과 신앙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구속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과 다시 화목되는 데 두는 것이 아니라 하이데거의 철학을 도입하여 인간이 비본래에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즉 자기에 대한 자기의 해방에 귀착시키지만 성경은 어디까지나 구원과 신앙을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과의 윤리적, 종교적 관계 아래서 취급하고 있다. 인간이 유일한 증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과 윤리적으로 화목되지 않는다면 실존주의가 말하는 인간의 본래 모습 회복도 참으로 불가능하며 그래도 그것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타락한 인간의 자율적 환상에 불과한 것이다.

맺는말

볼트만의 이 논문은 성숙화된 현대인들에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자처하는 성인들에게, 모든 것이 객관화되어 가는 과학 세계에 있어서, 모든 것을 인과론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현대 세계에 있어서 그래도 신약 성경이, 기독교 신앙이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을 비신화화하는(기독교 신앙을 반객관화, 비역사화, 탈세계화하는) 그 길밖에 없다는 목회적, 선교적 취지 아래 쓰여진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거듭 말하지만 그가 이 일에 성공을 거두었는가? 성경을 비신화화하고 재해석하여 현대인들에게 능력 있고 살아 있는 말씀이 되게 했는가? 오히려 볼트만은 이 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하나님의 객관적 구속 사건을 모두 부정해 버림으로써 기독교의 근본 토대를 허물어 버리고 말지 않았는가? 그는 자기 나름대로 기독교 진리를 옹호하기 위해 하이데거의 실존 철학을 도입했지만 그 결과는 양자가 서로 변증법적 긴장 관계에 머물게 됨으로써 결국 수단이 목적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아이러니를 낳고 만 것이 아닌가?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 철학을 내재 철학과 혼합하면 그 결과는 항상 기독교 복음의 근본을 훼손시키는 결과밖에 되지 않음을 알게 된다 (예, 중세 스콜라 철학의 결과, ref. 도웨벨트, 「과학의 세속화」, 박종철 역; *In the Twilight of Western Thought*, 1960, pp.61ff 참조).

그러므로 참된 신학은 신앙과 생활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최고의 결정권을 하나님의 영감된 성문 계시인 성경에 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이 무엇인지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도 겸손히 성경 자체의 가르침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이성이나 철학이나 과학이나 전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시험하거나 비평하거나 해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사상과 해석들이 성경 자체의 도전과 심판을 항상 받아야 하는 것이다.